

## 한덕수 국무총리,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

- 아세안 사무총장, 취임 후 첫 방한  
- 우리 인태전략 및 한-아세안 연대구상(KASI) 이행을 위한 협력 당부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**까으 김 후은 (Kao Kim Hourn)**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, 한-아세안 관계의 심화·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
※ 까으 사무총장, 외교부 공식 초청으로 6.15-18간 방한 중

□ 한 총리는 올해 1월 취임한 까으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,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-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, 우리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·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.

○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인태지역 자유·평화·번영 증진을 위해 인태전략 발표에 이어 **對아세안 지역정책**으로서 **한-아세안 연대구상(KASI)\***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 깊다고 하고,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-아세안 연대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.

\* Korea-ASEAN Solidarity Initiative

○ 또한,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, 인프라, 관광 분야 등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했다.

□ 한 총리는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아세안 주도의 정상회의(아세안+1, 아세안+3, 동아시아 정상회의)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.

○ 까으 사무총장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잘 알고 있다며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아세안이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을 환영하고 있으며,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동현	044-200-2133

